영어어문교육 *제21권* 4호 2015년 겨울

『한밤중 개에게 일어난 일』에 나타난 실존적 교육의 의미

김 대 중
(강원대학교)

Kim, Dae-Joong (2015). Meaning of existential education in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1*(4), 129-149.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 of education through close reading and analyzing a fiction, Mark Hadden's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Alongside this, the paper is to critically review genres of traditional bildungsroman and contemporary coming-of-age fiction. Traditionally, bildungsroman has centered on the issues of growing-up, education, and formation of humanity. As a contemporary version of bildungsroman, coming-of-age novels has a similar objectivity—narrative of growing-up in (post)modern world. This paper delves into this historical literary venue in light of philosophy, especially existentialism and ethics. As theoretical scaffoldings, the paper utilizes a methodological concept, meta-pedagogy. Meta-pedagogy is a theoretical lens to analyze literature critically revealing the structural connectivity between philosophy, literature, and education. To substantiate this methodology, the paper employes Maxin Green's existential meaning of education. Mark Hadden's novel ingenuously scrutinizes Christopher, an autistic child's idiosyncratic consciousness and his para-detective odyssey to find answers to the more fundamental questions such as 'who he is,' 'how he can survive,' etc. Through visiting this enclosed consciousness, people around him and readers will gain the meaning of education and existential ethics via meta-padagogical questions this fiction cleverly, timely, and heartedly casts.

[Bildungsroman/Coming-of-age fiction/meta-pedagogy/Mark Hadden/Autism/ meaning of education, 교양소설/성장소설/메타-페다고지/마크 해던/자폐증/ 교육의 의미]

I. 교육소설로서의 성장 소설과 그 역사

성장소설의 효시인 교양소설은 일반적으로 독일의 낭만주의 시대, 특히 요한 볼프강 폰 괴테(1999)의『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Wilhelm Meisters Lehrjahr*)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본다. 교양소설(Bildungsroman)의 빌둥(Bildung)

이 ‘형성(formation), 구축, 교육, 성장’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소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하다. 즉 성장소설이라는 장르는 애초부터 교육을 근원에 지닌 소설이다. 물론 현대의 교양소설은 ‘교육과 성장’이라는 담론에서 좀 멀어졌다. 영미권에서 교양소설은 현재 성장(coming-of-age)소설이라 불리며 주로 청소년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성장 소설들로는 성인작가가 청소년기를 다루고 그들의 문제들을 통해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소설들이 있다. 또는 아예 청소년 주인공의 삶을 다루고 청소년 독자들을 위한 ‘청소년 소설’(young adults novel)들이 출판되고 있다. 물론 교양소설과 성장소설과 청소년 소설의 경계는 모호하지만 교육과 맺은 관계는 유사하다. 최근에 무수히 나오고 있는 소수인종 작가들의 작품 중에 예를 충족시키는 작품들이 꽤 많다. 가령 아시아계 미국 작가들의 작품들 중에서 성장소설의 범주에 들어가는 맥신 홍 킹스턴(Maxine Hong Kingston)의『여인무사』(*Woman Warrior*)는 미국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교육목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성장소설이다. 이 소설이 미국 고교과정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에는 세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과 미국을 오가는 중국계 미국인에 대한 다문화 교육 텍스트로서의 기능이 있다. 둘째,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극복해 가는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 인문학적 교육 텍스트로서 기능한다. 셋째, 미국인에게 친숙하지 않지만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중국과 미국 문화에 대한 문화 역사 교육 텍스트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능들 외에도 작품이 다루는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비판이나 미국 인종주의에 대한 비판 등이 사회정의라는 주제에 걸 맞는다. 이렇듯, 근 현대의 교양 혹은 성장 소설은 교육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다.

과거의 교양소설로부터 현대 영미 소설의 하위장르로서의 성장소설로서 발전해 가면서 이들 소설들은 문학의 가장 큰 기능들로 꼽히는 쾌락적, 교육적 기능들을 다양한 형식과 주제의 변주들을 통해 달성해왔다. 가령 본 논문이 다루는 영국 현대 작가 마크 해던(Mark Hadden)(2003)의『한밤중 개에게 일어난 일』(*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은 자폐아라는 장애아동들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이를 통해 ‘타인과 공존하는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적 목적에 적합한 소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성만으로 성장소설과 교양소설 속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성장소설이 지닌 교육의 보다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인 가능성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성장 소설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철학적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가능성을 메타-페다고지의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교양소설과 성장 소설의 범주와 근원에 대한 탐구를 통해 메타-페다고지의 가능성을 탐색해 보고 이후 이러한 기능을『한밤중 개에게 일어난 일』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텍스트에 대한 메타-페다고지의

가능성의 탐색을 통해 영어교육과에서 이루어지는 교사교육의 문제도 미흡하나마 다루고자 한다.[1]

II. 메타-페다고지: 교육소설과 이방인으로서의 교사

문학 텍스트를 이용한 교육은 본질적으로 메타(meta)적 교육이다. 메타(meta)적이라는 것은 현실과 현상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현상의 또 다른 가능성들을 찾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철학의 가장 근원에 있는 근본적 철학이 사유 자체와 존재 자체를 묻는 형이상학(**meta**physics)이듯이 "meta"는 근본 문제를 통해 현실문제의 파악으로 넘어가게 하는 매개가 된다. 즉 누군가를 교육시키는 것을 문학 텍스트라는 허구의 공간에 대한 해석을 통해 경험하고 인간의 본질적이고 철학적 문제와 메타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기능하게 된다. 필자는 교양/성장소설 텍스트를 이용한 교육을 문학과 철학과 교육의 근본 문제를 연결시킨다는 점에서 메타-페다고지(meta-pedagogy)라 부르려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이 개념은 '가르침'의 의미를 우선 철학적 실존적 의미로 파악하고 그것을 소설 작품을 통한 탐구를 통해 실제 교육에서의 문제와 연결시킨다는 의미에서 방법론적으로 사용하였다. 메타-페다고지는 단순한 '가르침의 가르침'이라기보다 문학 매체를 통해 가르침의 근원에 있는 타인과의 관계와 소통에 대한 철학적이고 미적 의의를 파악하고 새로운 교육방법을 이룩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메타-페다고지는 역사적 개인의 사회에 대한 충돌과 그 개인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이에 따라 역사 속 주체와 타자들의 '소통'과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교양소설과 교집합을 이룬다. 그렇다면 우선 교양소설/성장소설의 역사와 철학적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양소설의 역사와 범주는 길고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교양소설은 독일에서 시작된 장르로 알려져 있다. 교양소설은 괴테의『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가 1796년에 출판된 이후로 하나의 소설 장르로서 형성이 되었다. 교양소설에 대한 논의는 심리학자인 칼 모젠스턴(Karl Morgehnstern)에 의해 장르적 차원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1985)의『시와 경험』(*Poetry and Experience*)에서 대중화 되었다.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 소설 장르와 이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의 구스타브 플로베르(Gustave Flaubert), 영국의 조지 엘리엇(George Eliot)이나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와 같은 작가들에 의해 그 맥락이 풍성해졌다. 물론 이러한 개념의 정리가 명징한 것은 아니다. 독일 문학에서 교양소설이 괴테로부터 19세기까지의 기간에 나온 주인공들의 영적, 예술적 성숙을 다루는 특정한 소설들을 지칭한다면 영미권에서의 교양소설은 그 범위가 더 커지고 정확한 경계가

[1] 영미소설을 통한 교수법에 대해서는 최재석(2005)과 최정선(2004)을 참조할 것.

모호해진다. 토비아스 보에스(Tobias Boes)(2006)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에는 독일과 영미권의 교양소설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교양소설을 대중화시킨 독일 철학자 딜타이에게 19세기 교양소설은 독일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만 발생하는 소설장르로 영국과 프랑스의 사실주의 전통과 차이가 있는 장르였다. 보에스에 따르면 딜타이는 독일의 교양소설 속 인물들이 사회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세계와의 능동적 대응에서 멀어지려는 자기중심적 주인공들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Boes, 2006, p.232). 보에스(2006)는 또한 이러한 교양소설의 전통이 영미권의 데카당트한 "사회 소설"과는 다른 소설장르로 인식되면서 나찌 정권 등의 선전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p.232).

보에스도 논하듯 독일의 교양소설은 주로 딜타이에 의해 규정되었지만 사실상 그 논의를 처음 시작한 칼 모젠스텐의 강의록은 1961 년이 되어서야 발견되었다. 보에스는 2009 년 *PMLA* 에 나온 또 다른 논문에서 칼 모젠스텐의 글을 번역하고 이에 대해 소개하였다. 칼 모젠스텐의 글은 여러모로 논쟁적이다. 보에스에 따르면 딜타이가 사회에서 '멀어진'개인과 내면의 측면에서 교양소설을 보았다면 모젠스텐의 강의는 사회와 역사의 관점에서의 개인의 문제로서 교양소설을 보았으며, 특히 교양소설을 통한 '독자의 발전'을 강조하였다고 소개한다(Boes, 2009, p.648). 딜타이가 주로 개인의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모젠스텐은 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풀어냈으며, 교양소설의 근원에는 '독자의 교육'이 있음을 암시했다. 이러한 교양소설의 사회적, 역사적 맥락은 미하일 바흐찐(Mikhile Baktin)(1986)의 연구에서 보다 두드러진다. 그는 교양소설을 역사의 진행 속에서 발생한 장르로 파악한다. 여행소설(travel novel)이나 위기소설(novel or ordeal) 등의 발전 과정에서 전기소설(biographical novel)과 교양소설이 나타났다고 논한다. 역사성이 배제된 여행소설과 영웅의 위기와 극복을 다루는 위기소설은 이후 교양소설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설들에 비해 교양소설 속 주인공은 역사 속에서 사회와 대결하는 역사적 인물이며 그가 살고 있는 역사적 상황을 대변한다고 바흐찐은 논한다. 즉 교양소설은 이전 소설과 달리 역사의 변증적 발전을 대변하는 주체이며 역사의 모순을 지닌 사회와 끝없이 갈등하는 주체이다.

게오르그 루카치(Geroge Lukacs)(1971)역시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교양소설을 서구 소설 장르 자체가 갖고 있는 모순으로 이해한다. 외부로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영혼의 의미를 찾는 서사시의 주인공과는 다르게 소설 속 주인공, 특히 성장 소설 속의 주인공은 영혼의 의미를 자신 내부에서 찾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탐구를 통해 추상적 이상주의와 낭만주의적 환상에서 벗어나고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인물의 노력은 좌절된다. 루카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양소설 속 인물의 투쟁은 역사-철학적 관점에서 모순과 아이러니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교양소설 속 인물의 무한한 성장과 불멸의 순수에 대한 꿈은 인간소외가 절정에 이른 근대적 세계 속에서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러한 좌절은 오히려 근대 이후의 산업화와 자본화 속에서 피폐된 개인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대에 들어서도 교양소설의 근대라는 역사-철학적 의의와 현실과의 모순적 아이러니적 관계에 대한 조망은 계속되었다. 프랑코 모레띠(Franko Moretti)(2000)는『세상의 이치』(*The Way of the World: The Bildungsroman in European Culture*)에서 유럽문학의 역사 속의 교양소설의 전개 과정을 살피고 이를 통해 어떻게 이 장르가 유럽 각국(주로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에서 근대 형성에 연관되어 발전해 갔는지를 살피고 있다. 거시적이고 조망적 관점에서 교양소설의 역사를 살핀 이 글에서 모레띠는 교양소설의 내러티브가 서구 근대의 "자아의 형성"(Build[ing] the ego)(p.11)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모레띠는 그러나 이러한 자아의 형성을 통해 영원한 발전을 보이는 근대와 근대의 장르인 교양소설이 결국은 성장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모순점을 찾아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양소설은 근대라는 역사적 배경과 좌절과 소외라는 현상과 개인의 내면보다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 구조의 주도화를 통해 성장해 왔다. 현대의 성장 소설 역시 지금 현재 사회 속 개인의 투쟁과 그 좌절과 희망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따라서 모젠스텐과 바흐찐과 루카치와 최근의 모레띠의 논의까지 보았을 때 교양소설 혹은 성장소설은 역사 속의 한 인간의 사회와의 대결을 통해 작품 속 인물의 성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아와 근대 세계간의 모순과 아이러니를 통해 독자의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교육 콘텐츠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양소설은 근원적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철학적인 통찰이 함께하는 소설들로서 교육의 의미가 담고 있는 인문학적 의의를 고찰하는 매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양소설이 역사 속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고찰할 교육 자료로 보게 된다면, 21 세기 현재 교육 맥락 속에 교양소설, 성장 소설을 위치시키는 것은 유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세계와 자아의 성장이 역사의 발전에 대한 의심과 자아의 성장의 한계에 대한 의식, 현실과의 충돌과 성장의 좌절을 통한 독자들의 인식의 확대라는 아이러니,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야 할 숙명을 지닌 교양소설 혹은 성장 소설의 장르적 특색을 생각한다면 이 소설들의 메타적 속성들을 어떻게 교육과 연결시킬지에 대한 깊은 교육학적 철학적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 한 해답으로서 교육철학자이자 예술교육 전문가였으며 사회 활동가이기도 한 맥신 그린(Maxine Green)(1995; 1973)의 문학 경험을 통한 교육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해석들은 의미 있는 방법론을 제공한다. 그녀의 저작들은 주로 인간의 상상력과 창의력의 세계를 탐구하였으며 교사 교육에 있어서 예술이 하나의 매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그녀의 저서들은 다양한 예술 작품, 특히 현대 영미 소설과 프랑스의 실존주의를 통한 그녀의 교육적 분석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학교 현장 교사들이 어떻게 실존적인 철학적 고민을 스스로와 자신의 교육 과정에 묻고 이것을 어떻게 미적 경험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지 탐구하였다. 가령『상상력

을 해방시키기』(*Releasing the Imagination*)(Greene, 1995)의 서문에서 그녀는 독자들, 특히 기능적인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들과 학교와 개인적 삶의 질곡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교사이거나 교사를 준비하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해방시키고 이를 통해 그들의 공감능력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고 있다(p.2-3). 이러한 상상력의 해방을 위해 맥신은 교사 혹은 미래의 교사가 될 독자들이 다양한 '허구'와 '상상력'을 이용한 작품들을 통해 예술가의 "만약의 세계(as if worlds)" (p.4, 필자 강조)에 들어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또한『이방인으로서의 교사』(*Teacher as Stranger*)(Greene, 1973)에서 그린은 사르트르를 인용하며 예술작품을 통한 철학적 사유란 현상에 대해 끝없이 질문을 던지는 비판적 사유를 의미한다고 보았고 현상학적으로 이를 통해 "우리 의식에 주어지는 세계 속 사건과 현상에 대해 고도로 의식하면서....마주치는 현실과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생산되는 주어진 것들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p.7).

실존주의와 현상학으로 무장한 맥신 그린의 예술과 철학에 대한 질문들은 교사에게 '자신은 누구이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며 현실을 넘어 미래의 변화를 만들어낼 상상력의 힘'이 어디 있는지 묻게 하는 질문들이다. 맥신 그린에게 사회적 역사적 실존으로서 교사는 스스로 '이방인'이 되어 (즉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자리매김하여 자기 자신의 현상을 관조함으로써) 매 순간 자신의 존재 가능성과 학생들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교사의 직업적 실천들과 행위들은 사실 교사의 실존적 선택이며 미래 변화에 의한, 학생들의 배움과 깨달음을 위한 것이며 나아가 자기 자신의 변화와 깨달음을 위한 행위들이다.

맥신 그린의 이러한 예술과 철학을 통한 교사의 존재와 임무(vocation)에 대한 비판적 사유는 다소 사변적이고 현실과 유리된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맥신 그린의 철학적, 예술적 질문들은 교사 교육에서의 인문학과 문학 텍스트의 역할에 대한 성찰로 이끌어진다. 교사의 삶은 아이들이 갖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매 순간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변화의 선택에 깊이 관여해야 하는 존재들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위한 선택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학생들과 학부모들과의 상호주체적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주체적 생활 세계 속에서 교사는 커리큘럼이라는 틀 안에서 '이방인'으로서 또 다른 '이방인'들인 학생들에게 '말 걸기'를 배우고 이를 통해 타자와의 '교실이라는 세계'를 구성하는 존재이다. 교사가 만나는 학생들은 다양한 가정환경과 다양한 지적 능력과 다양한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문학 작품은 이러한 교사들에게 메타-페다고지로서의 물음들을 미리 던질 수 있는 하나의 허구와 진실이 섞인 세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허구와 진실은 교사와 학생의 '배움 속의 삶'의 진리를 찾는 철학적 공간에서 나온다. 문학과 예술은

진리의 세계이다. 진리는 사실이 아니며 실천을 통해 열어 보이는 미래의 가능성이다. 한 자폐아의 성장과 그의 세계를 다룬『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일』(Hadden, 2003)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사 혹은 미래의 교사들, 학부모들에게 교육과 성장의 의미를 던질 수 있는 소설이다. 또한 이 소설은 근대를 넘어 현대 영국이라는 공간 속의 한 자폐아의 인식과 좌절과 세상과의 투쟁을 다룬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소설 속 자폐청소년인 주인공은 인간 소외와 가족의 붕괴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들이 일어나는 현대 사회 속 공간에 있는 가장 취약한 존재형태이자 교사들이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질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실존)철학적 맥락을 통해 볼 때 이 소설은 주인공의 좌절과 투쟁과 모순들을 통한 성장뿐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성장과 궁극적으로 독자들, 특히 교사들의 성장에 유의미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Ⅲ.『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일』: 실존적 질문으로서의 (자폐) 세계-안-존재

마크 해던의『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일』은 2003년에 출시되자마자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수학과 물리학에 천재적인 지능을 지닌 아스퍼거스 증후군 영국 소년 크리스토퍼 분(Christopher Boone)의 삶을 다루었다는 점과 장르적으로 독특한 포스트모던 탐정소설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출시 당시 뉴욕타임즈(*New York Times*)의 평들은 이 새로운 형식의 소설에 일제히 호평을 내놓았다. 미치코 카쿠타니(Michiko Kakutani) (2003)는 서평에서 영국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의 형식은 미국소설들인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이나『소음과 분노』(*The Sound and the Fury*)와 미국 미니멀리즘 전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았다. 또 다른 뉴욕타임즈 서평에서 제이 메클멤니(Jay Mclnemney)(2003)는 작품의 포스트 모던적 요소를 지적하며 기존 장르에 대한 파괴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살폈다. 1 년 후에 나온 뉴욕타임즈의 또 다른 서평에서 멜 거소우(Mel Gussow) (2004)는 이 작품을 읽은 자폐 아동 부모들이나 자폐아들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일부는 이 작품에 묘사된 자폐아들의 삶들에 크게 감동하고 공감한 반면 일부는 자폐아들의 삶을 잘못 재현하였다고 비판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가령 이 서평에서 소개된 한 자폐아는 “책 읽는 것이 내 머리 안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라고 하기도 했고, 다른 자폐아는 “나의 부모님에게 내 마음을 열어준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Gussow, 2004).

이외에도 작품에 대한 몇몇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 해외에서 나왔다. 스테파니아 시오시아(Stefania Ciocia)(2009)는 해던이 탐정소설이라는 장르의

공식들을 포스트던적인 방식으로 사용함으로써 소설이 혼성장르로서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보았다. 또 다른 비평가인 스테판 프리만(Stephan Freibmann)(2008)은 작품이 담고 있는 인식론적 의미를 내러티브 차원에서 살피고 이를 통해 특정한 앎과 삶과 말하기 사이의 관계를 탐색했다(p.395). 프리만(2008)은 인식철학과 임상의학적 측면에서의 아스파거스 질환의 한 가지 현상인 "마음의 무지(mind-blindness)"라는 개념을 통해 크리스토퍼의 임상적 증상이 "행위로부터 행동하는 이의 의도에 대한 추론을 할 수 없음"에서 나온다고 보았다(p.398). 또한 홀리 블랙포드(Holly Blackford)(2013)는 이 작품을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성장 소설의 고전인 마크 트웨인의『허클베리핀의 모험』(*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이나 헨리 제임스(Henry James)의『메이지가 알았던 것』(*What Maisie Knew*)의 연장선상에 이 작품을 위치시켰다. 홀리 블랙포드는 아스퍼거스 질환을 앓는 장애아동의 의식세계의 이야기가 기존의 성장 소설 문맥의 일종의 변용으로서 사회와 문화에 대한 풍자와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작품의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다. 주인공 크리스토퍼 분은 아스파거스 질환에 시달리는 소년으로서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간다. 그는 최근에 갑작스럽고 의문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을 겪었다. 작품의 시작 부분에서 그는 어느 날 옆집에 살던 시어스 부인 댁 개, 웰링턴이 정원에 쓰이는 삼지창에 찔려 죽은 것을 발견한다. 특수 장애 아동 담당 선생님 시오반(Sinobhan)의 충고에 따라 자신의 이야기를 기반해 탐정소설을 하나 쓰려 하던 크리스토퍼는 그가 목격한 개의 죽음에 대해 쓰기로 하고 살인자를 찾아 나선다. 경찰서에서의 한바탕 소동을 겪은 후 크리스토퍼는 탐정으로서의 조사에 나서고 결국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론에 도달한다. 크리스토퍼가 우연히 발견한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를 읽은 후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옆집에 살던 시어스씨(Mr. Shears)와 바람이 나서 도망갔고 아버지는 그 집에 홀로 남은 시어스 부인에게 관심을 갖다가 그 둘 사이에 생긴 불화에 대한 분노로 그 집의 개이던 웰링턴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후 크리스토퍼는 같이 살던 아버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혼자서 런던에 사는 어머니를 찾아간다. 이 전체 플롯은 시오반 선생님의 치료에 따라 쓰게 된 탐정소설이라는 또 다른 플롯을 안에 넣고 있다. 이러한 중층성은 포스트모던적 글쓰기의 하나인 메타픽션(metafiction) 혹은 자기반영(self-reflectivity)구조를 따르고 있다.[2]

---

[2]『메타픽션』(*Metafiction*)의 편집자이자 이 책의 서문을 쓴 마크 큐리(Mark Currie)(1995)에 따르면 메타픽션의 첫 용례는 윌리엄 가스(William Gas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후 1970년대 이후로 메타픽션은 자의식(self-consciousness, self-awareness, self-knowledge)과 아이러니한 자기 거리(ironic self-distance)를 가진 소설로 인식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식의 투영은 허구로서의 소설작품과 모순을 일으키고 이러한 모순성을 반조적으로(self-reflective)으로 조명하는 것이 메타픽션에 더 가깝다. 따라서 탐정소설의 형식으로 반조적으로 조명하고 이 의의를 패러디하고 자폐아 작가로서의 자의식의 투영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이 소설은 메타픽션에 해당한다 볼 수 있다.

장르와 구조의 측면에서 팔코너(Falconer)는 이 작품을 “사실주의적인 자전적 병력 기록과 성장소설과 탐정소설의 포스트모던적 혼합”이라고 부른다(재인용 Ciocia, 2009, p.324). 또한 스테파니아 시오시아(Stefania Ciocia) (2009)는 전통적인 탐정소설들이 범인이 누구고 진실이 무엇인지와 같은 인식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탐정 자신의 존재론적 속성이나 진리 자체와 같은 존재론적 질문을 묻는다는 점에서 스테파노 타니(Stefano Tani)와 같은 학자들이 이름 붙인 ‘형이상학적 탐정소설(metaphysical detective fiction)’ 혹은 ‘반-탐정 소설’에 이 소설이 속한다고 논한다. 전통적인 포스트모던 반-탐정(anti-detective) 소설은 탐정 자신의 추론능력과 해석능력과 인식능력의 한계를 보여줌을 통해 사건의 해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탐정의 개인적 삶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보여주게 된다(Ciocia, 2009, p.326). 반-탐정 소설의 탐정 화자는 자신의 해석학적 지평이 모호해짐을 재현함으로써 현상학적 이해의 지평과 생활세계의 지평의 모호성, 그리고 그를 통한 실존적 불안감 등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인식의 한계가 단순히 그의 오성과 이성의 한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존재론적이고 윤리적인 고민(나는 누구인가, 내가 찾는 진실은 과연 진실인가, 범인은 과연 악인일까 등등)의 차원으로 문제가 넓어지는 것에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 지평(horizon of interpretation)의 모호함을 겪게 되는 독자들 역시 자신의 세계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게 된다. 이들 학자들은 모두 이 소설이 가진 철학적, 소설 미학적, 교육적 의미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일』(Hadden, 2003)은 근대적 교양소설이 목표로 했던 독자의 성장과 교육의 가치를 지닌 현대의 철학적, 미학적, 교육적 성장소설이다.

크리스토퍼라는 인물이 지닌 비전형적 특수성과 그것에 내재된 실존주의적 의의와 보편성의 조응에서 교육의 의의가 발생한다. 크리스토퍼는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특수아동의 한 예일 뿐 아니라 교사를 포함한 인간 보편의 존재론이고 윤리적인 고민들을 던지는 ‘질문 자체’라 볼 수 있다. 우선 크리스토퍼에게 이 질문은 두 가지 차원으로 작동한다. 크리스토퍼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누가 개를 죽였는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내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개인적 질문인 ‘어머니는 어디로 갔는가’라는 질문을 해결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은 오히려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른인가’라는 새로운 질문으로 이끌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나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계속 있어야 하는가’와 ‘어머니는 왜 나를 버렸는가’와 ‘내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와 같은 실존적인 질문들로 이끌어지지만 크리스토퍼는 이 질문들을 침묵의 괄호 안에 넣는다. 크리스토퍼에게 개의 죽음에 대한 문제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들로 연결되지만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글 속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일부러 혹은 인식의 한계 때문에 감추거나 제시하지 못한다. 글의 구조 역시 크리스토퍼 자신의 삶에 대한 장들과 그가 보는 수학적 물리학적 세계에 대한 기록이 병치되면서 크리스토퍼가 보는 세상의 이중성을

담아낸다. 크리스토퍼의 세상 속에서의 글쓰기를 통한 성장담은 교양소설의 특징인 자아와 세계 사이의 모순성, 허구와 현실의 모순성, 성장과 한계의 질곡을 자폐적 의식을 통해 드러내 준다. 근현대의 교양소설과 성장소설의 비-자폐 주인공들의 삶들이 사회의 모순을 드러내는 거울이었다면, 크리스토퍼는 자폐라는 특수 거울을 통해 이 사회의 모순들을 더욱 복잡하게 드러낸다. 이를 통해 독자들 역시 '과연 이 자폐아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와 '이 소년의 고난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는가'나 '이 소년의 성장과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의식과 윤리와 교육의 질문들을 제기하게 된다.

크리스토퍼의 독특함은 비-자폐인들이 당연시 하는 몇몇 능력의 부재에서 나온다. 그는 추론능력과 가정능력이 없다. 프리만(2008)이 논하듯 이러한 추론(inference)과 가정(assumption)능력의 부재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독특한 취약점과 우월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사물 그 자체로' 환원하여 현실을 보는 크리스토퍼의 독특한 인식세계는 스스로에게 규정한 탐정으로서의 삶에 큰 장애가 됨과 동시에 큰 이득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추측해내지 못하며 표정 변화의 의미를 유추해내지 못한다. 그에게 추론과 유비 추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정능력의 약화에서 비롯된다. 가령 그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오해를 부르게 된다. 반면 그는 사진과 같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기억하고 묘사해 내는 기억력(photographic memory)을 바탕으로 현실에서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여준다. 특히 그의 수학과 물리학을 통한 세상읽기는 인간이라는 종을 관찰하는 외계로부터 온 로봇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한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이러한 독특한 의식을 타인보다 우월한 자질로 평가한다. 자신을 컴퓨터와 비교하면서 "새로운 장소에 있게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기대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당신은 그곳에 있는 모든 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컴퓨터가 꺼지는 현상을 부르게 된다....그리고 그것이 내가 체스와 수학과 논리를 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눈먼 이들이고 그들은 대부분의 것들을 볼 수 없고 그들의 머리에는 너무나 빈 공간들이 많아서 바보 같고 연결되지 않은 것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Hadden, 2003, p.144)라고 말한다. 즉 크리스토퍼에게는 자신만의 세계와 이유와 논리구조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의 논리구조와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고 본다. 그는 자신을 눈먼 이들의 나라에 유일하게 눈뜬 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사실에 집착하고 도상(schema)이나 기호나 그래프 등과 같은 명징한 세계에 집착한다. 그의 사유의 중심에는 좌표와 이미지들이 있고 그는 늘 자신의 존재를 명확한 좌표들을 통해 확인하려 한다. 특히 그는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는 것들에 분노한다. 노란색 음식과 갈색음식이 섞여서는 안 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의미가 명징해야만

한다. 그는 흑과 백이 명확한 세계관을 선호하며 은유를 거부하고 상징이나 단어의 뉘앙스의 이해와 문맥화에 서툴다.

어떤 측면에서 그의 수리적 물리적 세계는 지나치게 철학적이고 사변적이다. 그리고 그의 수학과 물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그 수학과 물리학의 세계가 가진 모호함과 명료하지 못함을 모순적으로 드러내고 그가 속한 생활세계의 실존적 미스터리를 드러낸다. 그는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왜냐하면 시간은 공간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것을, 가령 비스켓이나 각도기를 어디에 둔다면, 당신은 머리에 지도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두었는지를 말할 수 있으며, 만일 당신이 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도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재현*이기 때문에 당신은 그 각도기나 비스켓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표라는 것은 시간의 지도이기는 하지만, 만일 시간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시간은 층계나 정원이나 학교로 가는 길처럼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시간은 서로 다른 사물들이 변화되는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이다(Hadden, 2003, p.156, 작품 속 이탤릭).

크리스토퍼의 이 설명은 마치 엠마뉴엘 칸트의『순수이성비판』의 내용을 가져온 것 같다. 크리스토퍼가 무심하게 논증하는 이 내용은 감성적 직관이지만 선험적 내감에 의해 이해되는 시간과 선험적 외감에 속하는 공간 사이의 차이에 대한 칸트의 논의를 확장시켜 놓은 것처럼 사유한다. 칸트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선험적 질서의 근원이지만 시간은 공간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며 시간의 조건이 없이는 사물의 지각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다음 구절에서 크리스토퍼는 칸트와 그의 이론의 근원이 된 뉴턴의 질서 속의 문제를 지적한다. 크리스토퍼는 상대성이론을 이야기하며 시간이 결국은 누구도 그 의미를 풀지 못한 미스터리라고 본다(Hadden, 2003, p.157-158). 실제로 근대적 세계관의 중심인 시공간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무너지게 된다. 수학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크리스토퍼는 오히려 하이데거 등과 같이 시간의 실존적 성격을 찾아낸다. 마틴 하이데거(M. Heidegger)(1962)에 따르면 시간은 칸트적 질서에 속했다기보다 인간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존재의 본질이다. 시간은 유한한 인간의 삶 속에서 유의미해지며 죽음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드러낸다. 크리스토퍼의 수학적 물리적 좌표세계는 오히려 그가 실존적 질문을 찾아 나서게 하는 촉매제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은 작품이 지닌 실존적 의미를 수학과 과학이라는 세계로의 우회를 통해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크리스토퍼의 세계는 수학과 과학이라는 실증학문의 표층과 실존주의적 의미의 심층으로 채워져 있다. 이러한 이중성은 소수(素數, prime number)의 이중적 의미와 공명한다. 작품 속 소수는 크리스토퍼 세계가 가진

수학과 실존철학의 층위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세계를 소수의 세계라 부른다. 어느 것에도 나뉘어지지 않는 소수의 세계는 세계를 모두 패턴과 규칙들로 분석해야만 안전하다 느끼는 그의 고립된 세계를 대변하면서도 그 세계의 취약성을 내포한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쓰는 탐정소설의 각 장에 소수로 표기하고 소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소수를 찾아내는 규칙은 정말로 단순하지만 어떤 이도 어느 큰 숫자가 소수인지 혹은 다음에 어떤 수가 소수가 될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간단한 공식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만일 숫자가 정말 너무너무 크다면, 컴퓨터로도 이것이 소수인지 밝혀내는데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소수는 모든 패턴들을 제거했을 때 남는 수들이다. 나는 소수들이 인생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주 논리적이지만 평생을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 해도 당신은 그 법칙들을 알 수가 없다(Hadden, 2003, p.12).

소수는 크리스토퍼의 삶을 세 가지 차원에서 대변한다. 우선 소수는 단순한 수학의 숫자들이 아닌 그가 속한 폐쇄된 실존적 자아 세계를 상징한다. 하이데거 이론을 약간 뒤틀어서 말하자면, 크리스토퍼의 세계, 즉 (자폐)세계-속-존재로서의 그의 세계는 세상과 불통하는 고립된 세계이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우주 어딘가를 유영하는 작은 우주선 안이나 바다 속 잠수함 안에 폐쇄되어 있는 삶을 꿈꾼다. 소수가 인생인 이유는 이렇게 고립된 세계 안에서 안전을 느끼는 자신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두꺼운 금속으로 되어 있고 유리창이 있는 잠수함 속에서 혼자 머무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어둡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홀로 있는 자신을 상상한다(Hadden, 2003, p.80). 소수는 그의 폐쇄적 실존 세계를 지칭한다.

또한 소수는 폐쇄적인 크리스토퍼의 자아 밖에 위치한 현실 세계와 그 세계의 이해불가능성을 나타낸다. 추론과 가정이 없이 묘사와 분석적 논리만의 세계 속에 사는 크리스토퍼에게 세계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다. 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는지, 갑자기 왜 아버지가 폭력적이 되었는지, 왜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이해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지, 왜 죽었다던 어머니가 쓴 편지가 발견되었는지, 왜 웰링턴이 죽고 시어스 부인이 화를 내는지를 그는 알 수가 없다. 즉 (자폐)세계-안-존재이자 탐정소설 작가인 크리스토퍼는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세히 관찰해서 각 장에서 묘사를 하지만 그들 안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다. 가장 최소한의 판단 기준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오캄의 날'이 갖는 엄밀성으로 자신의 정신세계를 응시하는 크리스토퍼에게(p.90) 현실 세계는 오캄의 날과 같은 수학적 엄밀함만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생활세계는 수학적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 수학과 물리학의 세계가 연역과 귀납과 인과의 세계이지만 칸트가 이미 논했듯 자유의지나 운명이나 인간의 감정 등은 이러한 논리로 귀결이 되지 않는다. 후설 이후의 실존주의 철학자들 역시 이러한 모순에 방점을 찍었다. 근대적 자아가 데카르트적인 좌표 속 사유하는 존재였다면 현대의 자아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세계 속에 던져진 단독자들의 세계이다. 수학적 세계와 생활세계의 철학적 대립은 근대 이후 인간이 처한 세계 속 모순이다. 역사적으로도 과학과 수학의 정교화로 이루어진 서구 근대 문명은 전쟁과 같은 야만적 상태를 불렀으며 인간의 생활세계가 가진 독특성은 숨겨져 버렸다. 테오도르 아도르노가 논했듯 근대의 계몽은 탈신화를 가장한 신화화였으며 인간의 감성과 감정은 근대 이후로 수학과 물리학의 세계관에 포획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크리스토퍼가 겪는 세계관의 충돌은 바로 이러한 근현대 주체들의 모순성을 드러낸다. 이를 대표하는 소수는 이성과 논리로만 이해될 수 없는 생활세계와 수학과 물리학의 법칙 세계의 분리를 통한 파편화된 세계들에 대한 상징이며, 자폐인-작가인 크리스토퍼가 나름 법칙을 통해 드러내려 한 세계의 모상이다. 따라서 이 소수들은 크리스토퍼의 수학과 과학적 법칙의 세계와 생활과 실존 세계의 분리가 단순히 자폐청소년 크리스토퍼의 세계뿐 아니라 근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어느 정도 내재된 삶이라는 보편성을 보여준다.

소수는 또한 다른 관점에서 크리스터퍼의 삶이 가진 보편성을 나타낸다. 크리스토퍼의 제한된 인지능력에 따른 인식과 세계가 소수로 파편화되어 있다면 소수들 사이에는 무한한 수들이 존재한다. 즉 크리스토퍼가 아무리 세계를 자폐적 공간으로 환원시키려 노력해도 그 안에는 무수한 타인들의 존재와 그들과의 생활 세계 속 감성적 관계들이 끼어들게 된다. 소수 이외의 세계와 사건들로 대변되는 소수 이외 수들의 세계는 크리스토퍼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이다. 그에게 그 세계의 타인의 일들은 너무나 정보가 많아서 이해할 수 없는 화이트 노이즈(white noise)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제한과 필연적이고 인과적인 법칙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이다.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인간 일반의 조건이다. 하이데거는 인간에게 진리란 보이는 순간 사라지는 공간이며 인간은 죽음을 제외하고는 모든 필연성이 제거된 존재라고 논한다. 장 폴 사르트르는 이러한 인간의 조건이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의 열림이며 무한 선택으로 저주받았으나 그 저주를 안고 헤쳐 나아가야 할 조건이라 말한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는 다들 크리스토퍼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토퍼의 자폐-세계는 절대로 라이프니찌가 말하는 모나드(monad), 즉 절연된 단자의 세계가 아니다. 소수로 표시되는 그 단자들 주변에는 무수한 타인들의 삶들이 바로 옆에 소수+1 의 세계로 열려 있다. 자폐아동뿐 아니라 모든 학급 속 학생들은 단자들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실질적 사실은 열린 숫자들이다. 각각의 개인들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나 논리적 패턴이 보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성장과 소통과 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이 내러티브를 통해 누가 가르침과 성장을 이루는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Ⅳ.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일』: 성장(교육)소설 속 실존적 질문과 교육의 메타 페다고지로서의 의미

『한밤중에 개에게 일어난 일』은 탐정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 쓰여진 실존주의 소설이며 윤리와 교육에 대한 소설이다. 크리스토퍼의 '탐정소설 쓰기'라는 행위는 누가 범인인가를 찾는 과정을 통해, 소수로서의 크리스토퍼와 그 소수의 옆에 있는 주변인물들의 진실을 드러내게 되며, 실존적 질문으로서의 크리스토퍼에 대한 답을 내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 자신의 세계에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낸다. 크리스토퍼의 독특한 자아세계는 전술했듯이 세상에 대한 일종의 모순적(contradictory)이며 반조적(reflective) 거울로 작용한다. 그는 주변인들을 비추고 그들의 진실을 드러낸다. 그의 의식이 자폐라는 엄밀하고 정확한 거울이기 때문에 그의 진술들은 겉보기로는 신빙성을 지닌다. 탐정이 범인의 의도를 범인보다 더 잘 설명해내듯이 인간 내면의 탐정인 크리스토퍼는 비록 자신의 내면 속 감정을 추적하지는 못해도 주변인들의 세계를 정확하게 짚어낸다. 이러한 그의 능력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진 전면적 취약성에서 나온다. 크리스토퍼는 자폐(세계)-내-존재로서 작품 전체가 가진 타자에 대한 윤리의 근원을 내밀하게 보여준다.

크리스토퍼는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고 이해불가능한 타자로 기능한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행동의 문제들로 "오랫동안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먹거나 마시지도 않으며, 누가 만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타인들과 좁은 공간에서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노란색이나 갈색 물건들은 뭐든 싫어해서 만지지도 않고… 음식물들이 접시에 섞여 있으면 먹지도 않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을 알지 못하며, 웃지도 않고, 사람들이 무례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을 하며…다른 사람들을 때리"기도 한다고 묘사한다(Hadden, 2003, p.47). 크리스토퍼의 이러한 행동들은 자폐증상을 앓는 아동들의 대표적인 행동들이기도 하며 그가 가진 타자로서의 취약성(vulnerability)를 드러낸다. 그의 선생님인 제본스(Mr. Jeavons)는 크리스토퍼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한다(p.61). 크리스토퍼는 연역을 통한 보편적 논증이 가능하고 해답이 존재하는 수학의 세계에서만 취약한 자신의 세계를 지킬 수 있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이라는 존재자의 존재의 집이 엄밀성과 해답이 존재하는

세계인 수학과 과학뿐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독자들은 작품을 읽으면서 과연 그런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지니게 된다. 역설적으로 크리스토퍼의 수학과 과학을 통한 논증은 세상이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문제는 크리스토퍼가 과연 신뢰할만한 화자인가라는 질문과도 연결이 된다. 크리스토퍼의 탐정소설 작가로서의 질문과 감춰진 실존적 질문의 차이는 '과연 크리스토퍼는 진실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서사학(narratology) 차원의 문제와도 상응한다. 이에 대해 시오시아는 화자가 '신뢰할 수 없는 화자'라고 한다. 이와는 조금 다르게 프리만은 화자가 신뢰는 할 수 있으나 현실을 파악하고 추론하는 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화자(limited narrator)'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p.396).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주장하듯이 단순히 진실만을 말하는 '인간 컴퓨터'가 아니다. 비록 크리스토퍼가 자신을 컴퓨터와 비교하고 진실만을 말한다고 해도 그의 진술은 제한된 화자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모순적인 자의식을 보여준다.

가령 크리스토퍼는 작품 초반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이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다. 단지 그것은 내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다(p.19). 그러나 작품 중간에 가면 화자는 "나는 내가 '농담을 할 줄 모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13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세 가지의 농담들을 알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소에 대한 것이고 시오반 선생님은 내가 이 글에서 다시 돌아가 13장 내용을 고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단지 '정정' (clarification)이기 때문이라고 했다"(p.143)라고 말한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되고 싶은 정확하고 농담을 모르는 컴퓨터가 될 수 없으며 그의 이야기는 스스로 인정하듯이 오류와 오해와 해석으로 가득한 글임을 인정한다. 크리스토퍼는 때때로 화자로서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러나 독자에게 사건의 파악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들을 과감히 생략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기도 한다.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보여주기만 하는 제한된 화자가 아닌 제한된 인식 속에서 감정을 감추고 사실관계를 편집해 보여주는 화자이며 감정의 취약성을 감춘 화자이다. 그의 의식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과 수학과 과학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세상에 대한 거울이 아니라 오류와 편집으로 얼룩이 진 여느 다른 아이들과 다름이 없는 거울이다. 또한 그가 쓴 글 역시 오류와 숨겨진 의미들로 가득한 얼룩진 거울이다. 교양소설의 특징인 현실과 자아의 모순과 아이러니를 이 작품은 그대로 가지게 된다.

크리스토퍼라는 순수한 화자(naïve narrator)라고 볼 수 없다. 그의 의식은 얼룩지고 취약한 거울로서 세상에 대한 분노를 감추고 있다. 그가 화를 내는 것은 그가 그만큼 취약한 타자임을 증명한다. 그 취약성을 방어하기 위해

크리스토퍼는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긴 사라를 무지비하게 때리며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에 대한 적개심을 보이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경계하며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혹시 있을 위협에 대항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스위스 칼을 늘 지니고 다닌다(p.34). 크리스토퍼는 자신이 아스파거스병 증상의 하나로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 그는 자신에게 위해가 되거나 자신을 위협하는 진실들을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그는 취약한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사실과 자신의 감정을 왜곡한다. 한 예로 이웃인 알렉산더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앞집 시어스 씨와 바람을 피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들은 크리스토퍼는 자신을 걱정하며 슬프지 않느냐고 묻는 시오반 선생님에게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이 전혀 슬프지 않으며 자신은 늘 진실만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확인된 사실조차 일부러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그는 “전혀 슬프지 않아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리고 시어스 씨가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게 되었잖아요. 내가 실재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는 슬픔을 느낀다면 그건 너무 바보같잖아요”(p.75)라고 말한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세계가 침범 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진실의 허구 속에 숨어버린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맞고 알렉산더부인의 말이 틀린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면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 속에서 의심과 분노가 숨겨져 있다. 어쩌면 크리스토퍼는 처음부터 어머니가 시어스 씨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신뢰할 수 없는 화자로서 그는 자신의 독특한 세계관 속에 자신의 진심을 감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크리스토퍼의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타자의 윤리는 타자나 주체가 모두 취약성(vulnerability)를 지닌 실존적 존재자임을 보편적으로 인식할 때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이 실존적 윤리에 대한 이해 속에서 이 작품이 숨겨놓은 메타-페다고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약자로서 크리스토퍼는 우리가 숨기려 하는 우리 자신의 취약함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토퍼는 인간 보편의 성장통과 실존적 취약성을 극대화시킨 프로토타입이다.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감정을 느끼지 않는 컴퓨터로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이나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의 세계에 고립시키려는 욕망들은 모든 인간들이 겪게 되는 성장통의 일환이다. 작품 속 인물들이나 독자들이 크리스토퍼에게 공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편성 때문이다. 크리스토퍼는 인물들과 독자들이 자신들의 성장 속에서 겪었던 소외와 절망을 극단적으로 확대시키는 거울이다.

아버지가 웰링턴을 죽인 범인임을 깨달은 크리스토퍼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는 런던에 있는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의 모험을 떠난다. 그는 “나는 집을 떠나야 했다. 아버지는 웰링턴을

죽였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나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믿어달라'고 했지만 나는 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왜냐하면 그는 큰일에 대해서 이미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p.122). 아버지는 이미 어머니의 사건을 죽음으로 거짓되게 말하였기에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그가 자신을 믿어달라는 말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나야 한다고 논증을 한다. 인과관계를 통해 사태를 추정했을 때 삼지창에 찔려 죽은 웰링턴은 크리스토퍼 자신의 미래가 될 수 있다여긴다.

이 런던으로의 여행에서 크리스토퍼는 많은 난관들에 부딪친다. 경찰에게 잡혀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될 뻔도 하고 짐칸에 실려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갈 뻔도 하고 자신이 키우던 애완용 쥐 토비가 열차 선로로 뛰어들자 그것을 잡기 위해 뛰다가 죽을 뻔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가 만난 어머니의 상황 역시 녹녹하지 않다. 어머니와 시어스씨의 생활은 안정되지 않았으며 둘의 관계는 무너지기 일보직전이었다. 크리스토퍼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인 A 레벨 수학 시험을 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길 요구한다. 크리스토퍼에게 이 수학 시험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크리스토퍼는 비록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미래가 이 시험과 앞으로 있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세계에 있음을 알고 있다. 크리스토퍼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 수학과 과학으로 학위를 따고 관련된 직업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내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갈 꿈을 꾼다(p.45). 결국 어머니는 시어스 씨를 떠나 크리스토퍼와 함께 아버지의 동네로 돌아가게 된다.

작품의 마지막에 크리스토퍼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는 시험을 통과하고 A 학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년 안에 나는 A 레벨 물리학 시험을 볼 것이고 A 학점을 받을 것이다. 그걸 다 하고 나면, 나는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원과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나의 개인 샌디와 내 책들과 컴퓨터와 더불어 살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최고학생들을 위한 졸업장을 수상할 것이고 나는 과학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혼자서 런던도 갔을 뿐 아니라 '누가 웰링턴을 죽였나?'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었고 어머니를 발견했고 나는 용감하고 내가 책을 썼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 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p.221).

크리스토퍼는 이제 '(자폐)세계-속-존재' 혹은 사유만의 존재가 아닌 '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한다. 크리스토퍼는 전통적 교양소설의 주인공들보다 훨씬 더 현대적인 의미에서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단순히 크리스토퍼의 성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성장을 이루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 독자들이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아무런 감정적 대답이 없는 자폐아를 돌보던 어머니는 매 순간 도망가고 싶어 했고 결국은 도망가게 된다. 그러나 이 어머니를 크리스토퍼는 런던까지 혼자 여행해서 찾아갔고 어머니는 결국 자신이 크리스토퍼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소통 불가능한 이방인으로 규정하려 했음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된다. 크리스토퍼와 대화를 하고 그와 공감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맞는 세계 속에 참여했어야 함을 어머니는 이해하게 된다. 크리스토퍼에게는 자신만의 법칙과 세계관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말걸기'를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크리스토퍼 세계의 문 밖에 서 있는 이방인임을 이해하고 그의 문을 무력으로 열기보다 문을 두드리고 계속 크리스토퍼의 언어로 소통을 시도했어야 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크리스토퍼의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대화 방법을 알지 못했다. 웰링턴을 죽인 것을 안 크리스토퍼가 아버지와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하지만 아버지는 크리스토퍼 세계의 문을 두드리며 조금씩 천천히 그의 세계를 위협하지 않고 그를 이해하려는 이방인이 될 것임을 다짐한다.

작품 속 교사의 모습은 인간 성장에 필요한 철학적 자기 성찰을 위해 글쓰기를 통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작품 속 시오반 선생님은 이렇듯 스스로를 소수로 규정하려는 크리스토퍼의 세계를 내러티브로 만들고 스스로 그 인과관계를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하도록 돕는다. 그녀는 사태를 해석하고 정답을 주기보다 크리스토퍼 스스로 그 사건들의 의미를 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찾는데 도움을 준다.

작품 속 독자들은 시오반 선생님이나 크리스토퍼의 입장, 혹은 그들 주변인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진정한 교육과 삶의 의미를 실존적으로 물을 수 있게 된다. 작품 속 층위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독자의 참여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취약성과 윤리성과 타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타자에게 말걸기의 문제를 고민하게 한다. 더불어 교사나 미래의 교사, 특히 특수교사들에게 크리스토퍼의 이야기는 허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나와 전혀 다른 의식과 사고방식을 지닌 타자'와의 소통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보편적 윤리, 즉 '타인에게 말걸기'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메타-페다고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이방인끼리 말걸기와 문학의 메타-페다고지로서의 가능성

작품의 말미에 크리스토퍼는 자신만의 종말론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 한다.

> 꿈에서 지구상의 모든 이들이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다. 이것은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다. 그리고 사람들은 감염된 사람들이 말하거나 그들이 말할 때 만드는 표정의 의미 때문에 이 병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에 걸린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온 것만으로도 이 병에 걸리게 되고 이에 따라 전 세계인들이 이 병에 걸리게 된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다가 죽게 된다....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이들의 얼굴들을 보지 않거나 [사람들의 표정] 그림들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즉 나같이 특별한 사람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그러면 나는 세계 어느 곳에나 갈 수가 있고 나는 어떤 이도 나에게 말을 걸거나 만지거나 질문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p.198-199).

크리스토퍼의 종말론적 꿈은 그의 분노를 잘 보여준다.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논리와 세계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 말과 표정이 다른 이들,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말하는 이들, 자신과 같은 특수 아동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들과 같은 모든 이들이 모두 사라지길 크리스토퍼는 염원한다. 작품이 끝나고도 이러한 크리스토퍼의 염원이 계속 남아 있게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우리가 그를 이방인으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실존적 질문을 던지지 않는 한 그는 우리 사회에서 영원한 이방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크리스토퍼는 적어도 훌륭한 선생님을 가지고 있다. 그 선생님은 크리스토퍼의 질문에 대한 답과 그의 감춰진 분노 통제를 자신 안에서 찾도록 탐정소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도와주려 한다. 아마 이 시오반 선생님은 작가인 마크 해던 자신의 현현일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에게 이방인인 이들의 교육에 가장 적당한 이야기를 만들어 그들과의 대화를 시도한다.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인식하는 작가와 교사만이 이방인으로 머물고 폐쇄되고 분노로 피폐되어 가는 아이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들을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논리를 지니고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 작품의 마지막에는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수학적 명제 풀이과정이 부록으로 들어가 있다. 아마 작가는 우리와 아스파거스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서로 다르지 않은 서로간의 이방인이지만 서로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형성해야 할 존재들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성장소설로서, 교육소설로서, 교양소설로서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바로 이 '풀려난 상상 속'의 아이의 목소리가 바로 우리 반의 아이의 목소리, 나 자신의 목소리와 같이 소설과 현실의 모든 공간에서 울리기 때문이다. 바로 이 순간 진리는 공명하고 소통한다.

참고문헌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김숙희 역(1999).『빌헬름 마이스터의 편력시대 1, 2』. 서울: 민음사.

최정선.(2004). 대학 강단에서 마크 트웨이 가르치기. *영어어문교육*, *10*(2), 159-176.

최재석.(2005). 한국 대학에서의 영미소설 가르치기. *영어어문교육*, *11*(1), 225-243.

Bakhtin, M. (1986). The bildungsroman and its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realism (Toward a historical typology of the novel). In C. Emerson & M. Holquist (Ed.), *Speech genres & other late essays.* (V. W. McGee, Trans.). (pp. 10-60).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Boes, T. (2006). The modernist studies and the bildungsroman: A historical survey of critical trends. *Literature Compass*, *3*(2), 230-243.

Boes, T. (2009). On the nature of the "bildungsroman". *Pmla*, *124*(2), 647-659.

Blackford, H. (2013). Raw shok and modern method: Child consciousness in Flowers for Algernon and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Children's Literature Association Quarterly*, *38*(3), 284-303.

Ciocia, S. (2009). Postmodern investigations: *The case of Christopher Boone in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Children's Literature Association, 40*, 320-332.

Currie, M. (Ed.). (1995). *Metafiction*. London: Longman

Dilthey, W. (1985). *Poetry and experence*. In M. Rudolf & F. Rodi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Freißmann, S. (2008). A tale of autistic experience: Knowing, living, telling in mark haddon's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Partial Answers: Journal of Literature and the History of Ideas*, *6*(2), 395-417.

Greene, M. (1995). *Releasing the imagination: Essays on education, the arts, and social chan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Greene, M. (1973). *Teacher as stranger*.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Inc.

Gussow, M. (2004, August 3). Novel's sleuth views life from unusual perspective. *The NewYorkTimes.*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2004/08/03/books/novel-s-sleuth-views-life-from-unusual-perspective.html?_r=0

Haddon, M. (2003). *The Curious Incident of the Dog in the Night-time.* London: Vintage.

Heidegger, M., Macquarrie, J.,& Robinson, E. (1962). *Being and time*. Malden, MA: Blackwell.

Kakutani, M. (2003, June 13). Books of the times; math and physics? A cinch. people? incomprehensibl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

2003/06/13/books/books-of-the-times-math-and-physics-a-cinch-people-incomprehensible.html

Lukács, G. (1971) *The theory of the novel*. (A. Bostock, Trans.). Cambridge, MA: The M.I.T. Press.

Mclnemey, J. (2003, June 15). The remains of the dog. *The New York Times*. Retrived from http://www.nytimes.com/2003/06/15/books/the-remains-of-the-dog.html

Moretti, F. (2000). *The way of the world: the bildungsroman in european culture*. (A. Sbragia, Trans.). London and New York: Verso.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or University

김대중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교육 4 관 영어교육과 사무실
Tel: 033-250-6633
Email: daimon2002@kangwon.ac.kr

Received in October 15, 2015
Reviewed in November 26, 2015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5, 2015